

2021학년도 11월 고2 전국연합학력평가

정답 및 해설

• 1교시 국어 영역 •

1	③	2	⑤	3	⑤	4	⑤	5	④
6	③	7	④	8	②	9	④	10	③
11	②	12	④	13	①	14	②	15	⑤
16	③	17	③	18	⑤	19	④	20	⑤
21	④	22	②	23	①	24	②	25	②
26	①	27	③	28	①	29	④	30	③
31	④	32	④	33	④	34	③	35	④
36	②	37	②	38	②	39	⑤	40	①
41	⑤	42	⑤	43	③	44	②	45	①

[화법]

1. [출제의도] 발표자의 말하기 방식 파악하기

2문단에서 ‘이처럼 성들의 모양이 다양하게 나타나는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3문단에서 ‘그렇다면 각자성석에는 어떤 내용이 새겨져 있을까요?’라고 발표 내용과 관련된 질문을 하여 청중의 주의를 환기하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2. [출제의도] 매체 활용 계획의 반영 여부 파악하기

4문단에서 훼손된 성벽의 사진을 제시하였다. 하지만 ‘오늘날 한양도성을 복원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지 않고 있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① 1문단에서 ‘한양도성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 분들은 드물 것’이라고 말하며, 옛 성벽의 형태를 유지하고 있는 한양도성의 모습을 담은 동영상 제시하여 청중의 흥미를 유발하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② 2문단에서 성벽의 한 구간의 사진을 제시하며 ‘성들의 모양이 ~ 궁금하지 않으신가요?’라는 질문을 하였고, 이 사진을 활용하여 태조 때부터 숙종 때까지의 성벽의 특징을 시기별로 설명하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③ 3문단에서 ‘각자성석에 대해서는 처음 들어보실 텐데요.’라고 말하며 각자성석의 사진을 확대하여 청중에게 성돌에 글자가 새겨진 것을 보여 주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④ 3문단에서 ‘각자성석에는 도성의 ~ 기록되어 있습니다.’라고 말하며 각자성석의 사진 자료를 제시하여 시대별로 설명하고 있다. 각자성석에는 축성 구간 구분 등 여러 정보가 담겨 있으므로 적절하다.

3. [출제의도] 청자의 반응 이해하기

‘학생 1’과 ‘학생 2’는 모두 기존의 지식을 수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① ‘학생 1’은 첫 번째 메모의 내용을 통해 각자성석과 관련하여 알게 된 점이 흥미로웠다고 긍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므로 적절하다. ② ‘학생 2’는 첫 번째 메모의 내용을 통해 한양도성에 갔을 때의 경험과 관련짓고 있음을 알 수 있으므로 적절하다. ③ ‘학생 1’은 두 번째 메모의 내용을 통해 다른 나라의 사례에 대한 정보가, ‘학생 2’는 세 번째 메모의 내용을 통해 태조, 세종, 숙종 때 외에 다른 시기의 축성과 관련된 정보가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므로 적절하다. ④ ‘학생 1’은 세 번째 메모의 내용을 통해 현대에는 어떤 기술로 한양도성을 복원했는지를, ‘학생 2’는 두 번째 메모의 내용을 통해 조선 초기 한양도성 축성 과정 중에 겪었던 어려움에는 어떤 것들이 더 있었을지 궁금해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므로 적절하다.

[화법 · 작문]

4. [출제의도] 토론 입론의 쟁점 이해하기

‘반대 1’은 입론에서 ‘디지털 기기는 서책에 비해 ~

환경에 더 유해합니다’라고 말하며 디지털 교과서는 서책 교과서에 비해 많은 이산화탄소를 배출하여 환경에 유해함을 밝혔지만, 이산화탄소가 배출되는 원리는 밝히지 않았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① ‘반대 1’은 입론에서 ‘디지털 교과서는 ~ 학습에 불편을 줄 수 있습니다.’라고 말하며 디지털 교과서 활용에 필요한 여건을 제시하고, 그 여건들이 충족되지 않을 경우 학습에 제약이 있음을 밝히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② ‘찬성 1’은 입론에서 ‘또 서책을 만드는 데 ~ 아낄 수 있어 경제적입니다.’라고 말하며 서책 교과서 제작에 들어가는 비용을 절감할 수 있어 디지털 교과서가 경제적이다라는 주장을 강조하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③ ‘반대 1’은 입론에서 ‘서책 교과서와 달리 ~ 경제적이지 않습니다’라고 말하며 디지털 교과서가 경제적이지 않다는 것을 서책 교과서와 비교하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④ ‘찬성 1’은 입론에서 ‘종이 생산을 위한 ~ 보호할 수 있습니다’라고 말하며 디지털 교과서가 종이 생산을 위한 벌목을 하지 않아 환경 보호에 효과가 있음을 밝히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5. [출제의도] 토론의 반대 신문 이해하기

[C]의 ‘찬성 1’은 반대 신문에서 ‘미국, 캐나다 등 여러 나라에서는 ~ 교육 환경을 조성하고 있습니다.’라는 발언을 통해 다른 나라들의 현황을 예로 들며 자신의 논지를 강화하기 위해 ‘우리 사회도 ~ 생각하지 않으십니까?’라고 질문하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6. [출제의도] 글쓰기 전략 이해하기

(가)의 ‘서책 교과서를 사용하면서 ~ 키울 수 있습니다’에 나온 서책 교과서 도입으로 인해 정보처리 역량을 키울 수 있다는 내용이 (나)의 3문단에 반영되었으나 디지털 교과서가 정보처리 역량을 키울 수 있다는 내용은 제시되지 않았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① (나)의 1문단의 ‘이들은 태어나서부터 ~ 더 익숙하다.’에서 (가)에서 ‘사회자’가 발언한 ‘서책 교과서를 디지털 교과서로 교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는 논제와 관련된 변화된 사회상을 제시하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② 디지털 환경에 익숙한 세대를 지칭하는 용어인 ‘디지털 네이티브’는 (가)에서는 언급되지 않고, (나)의 1문단에 언급되어 있으므로 적절하다. ④ (가)에서 ‘찬성 1’은 손쉽게 심화 학습하는 것이 디지털 교과서 도입으로 학습자가 얻게 되는 효과라고 말하고 있고, (나)의 2문단에서는 협력 학습과 개별화 학습도 할 수 있다고 언급하였으므로 디지털 교과서 도입으로 사용자가 얻게 되는 효과를 확장하여 제시했다는 것은 적절하다. ⑤ (나)의 4문단에서 ‘학생들의 다양한 ~ 것이라 생각한다.’라고 (가)에서 언급되지 않은 디지털 교과서의 성공적 도입을 위한 양질의 콘텐츠 개발이 필요함을 제시한 것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적절하다.

7. [출제의도] 조건에 맞는 글쓰기

‘디지털 나침반’과 같은 비유적 표현을 활용하여 디지털 교과서 도입의 기대 효과를 드러내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① 디지털 교과서 도입을 통한 기대 효과는 확인할 수 있으나, 비유적 표현은 확인할 수 없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② ‘거스를 수 없는 물결’에서 비유적 표현을 확인할 수 있으나, 디지털 교과서 도입을 통한 기대 효과는 확인할 수 없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③ ‘동전의 양면과 같다’에서 비유적 표현은 확인할 수 있으나 디지털 교과서 도입을 통한 기대 효과를 확인할 수 없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⑤ 디지털 교과서 도입을 통한 기대 효과를 확인할 수 있지만, 비유적 표현은 확인할 수 없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작문]

8. [출제의도] 글쓰기 계획의 반영 여부 파악하기

(가)에서 이 글의 목적이 아이스 팩으로 인해 발생하는 환경 문제에 대한 관심을 촉구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나)의 2문단에서 아이스 팩으로 인해 발생하는 환경 오염 문제를 대기 오염, 토양 오염, 수질 오염의 3가지 유형으로 분류하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9. [출제의도] 자료 활용 방안의 적절성 판단하기

[자료 1-㉔]에서 고흡수성 수지 아이스 팩을 매립하여 폐기하는 경우가 53.6%로 나타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자료 2]에서 고흡수성 수지가 자연 분해되는 데 소요되는 기간이 무려 500년 이상 걸린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두 자료를 바탕으로 도출할 수 있는 내용은 대기 오염이 아니라 토양 오염과 관련된 것이다. 따라서 [자료 1-㉔]와 [자료 2]를 활용하여 대기 오염 문제의 심각성을 강조한다는 자료 활용 방안은 적절하지 않다.

① [자료 1-㉔]에서 아이스 팩 생산량이 매년 증가하고 있다는 내용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이를 아이스 팩 생산량이 급증하고 있다는 내용을 뒷받침하는 근거로 활용하는 것은 적절하다. ② [자료 2]에서 친환경 아이스 팩으로의 대체가 기업의 매출 증대로 이어진다고 제시되어 있으므로, 이를 활용하여 기업의 노력을 강조하는 내용으로 사용하는 것은 적절하다. ③ [자료 3]에서 다 쓴 아이스 팩으로 토양 보수를 만든다는 내용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가정에서 아이스 팩을 이용한 생활용품 만들 수도 있다는 내용은 해결 방안으로 적절하다. ⑤ [자료 3]에서 아이스 팩을 버릴 때 종량제 봉투에 버리는 것이 바람직함을, [자료 1-㉔]에 아이스 팩을 하수구 배출로 버리는 비율이 15%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를 근거로 규정을 잘못 알고 있던 사람들에게 정부가 올바른 분리수거 규정을 홍보해야 한다는 내용은 해결 방안으로 적절하다.

10. [출제의도] 교차쓰기의 적절성 파악하기

[A]와 <보기>에서 모두 아이스 팩이 우리 생활에 많은 편의를 주고 있음이 분명하며, 제재가 가지고 있는 장점에 대해 서술하고 있어 차이가 없다. 설득력을 높이기 위해 제재가 가지고 있는 장점을 추가 했으면 좋겠다는 조언은 <보기>에 반영되지 않았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① [A]의 ‘우리 생활에 많은 편의를 주고 있음은 분명하다.’에서 생략된 주어인 ‘아이스 팩’이 반영되었으므로 적절하다. ② [A]에서 ‘아이스 팩 없이는 신선 식품이 생산되기 힘들다’는 내용은 글의 목적과 주제를 고려하였을 때 글의 흐름에 어울리지 않는다. <보기>에는 이 문장이 삭제되어 있어, 친구의 조언이 반영되어 있으므로 적절하다. ④ [A]에는 관용적 표현이 사용되고 있지 않은 반면, <보기>에는 ‘손에 손을 잡고’라는 관용적 표현을 사용하여 협력의 필요성을 밝혔으므로 적절하다. ⑤ [A]에는 문제 상황에 대한 가정과 예상되는 결과를 언급하고 있지 않았는데, <보기>에서 ‘문제점을 해결하지 ~ 끼칠 것이다’가 추가되었으므로 적절하다.

[언어]

11. [출제의도] 부사어 이해하기

㉔의 ‘친구와’는 ‘싸우다’가 필수적으로 요구하는 문장 성분이지만, ㉔의 ‘설마’는 없어도 문장의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수의적 성분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① ㉔의 ‘에’는 ‘아침’과 결합하여 ‘시간’의 의미를 나타내며, ㉔의 ‘에’는 ‘때문’과 결합하여 ‘원인’의 의미

를 나타낸다. 같은 형태의 부사격 조사가 서로 다른 의미로 사용되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③ ㉔의 '결코'는 문장에서 '그렇지 않아'를 수식하고 있으며, 부정 표현과 호응을 이루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④ ㉕의 '그런데'는 앞 문장과 뒤 문장을 이어주는 접속 부사이므로 적절하다. ⑤ ㉖의 '편하게'는 어간 '편하-'에 어미 '-게'가 붙어 '대했던'을 수식하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12. [출제의도] 중세 국어 부사격 조사의 특징 이해하기

㉑에서 '터리'의 '이'는 현대 국어와 달리 비교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부사격 조사로 사용되었지만 'ㅣ'모음 뒤에서 사용된 것이 아니므로 적절하지 않다.

① ㉒에서 '바르래'의 '애'는 선행 체언 '바를'의 끝음절 모음이 양성 모음이기 때문에 사용된 것이므로 적절하다. ② ㉓에서 '지비'의 '의'는 '집'이라는 특정 체언 뒤에 붙어 장소를 나타내는 부사격 조사로 사용된 것이므로 적절하다. ③ ㉔에서 '블라와'의 '라와'는 현대 국어와 달리 비교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부사격 조사로 사용된 것이므로 적절하다. ⑤ ㉕에서 '저그로'의 '으로'는 현대 국어와 달리 출발점의 의미로 사용된 것이므로 적절하다.

13. [출제의도] 단어의 구조 파악하기

'울음보'는 ㉑에서 어근 '울음'과 접사 '-보'로 분석되고 ㉒에서 어근 '울-'과 접사 '-(으)ㅁ'으로 분석되므로 적절하다.

② '헛웃음'은 ㉑에서 어근 '웃음'과 접사 '헛-'으로 분석되고 ㉒에서 어근 '웃-'과 접사 '-(으)ㅁ'으로 분석된다. 따라서 ㉑에서 어근과 어근으로 분석된다는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③ '손목뼈'는 ㉑에서 어근 '손목'과 어근 '뼈'로 분석되고 ㉒에서 어근 '손'과 어근 '목'으로 분석된다. 따라서 ㉑에서 어근과 접사로 분석된다는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④ '얼음길'은 ㉑에서 어근 '얼음'과 어근 '길'로 분석되고 ㉒에서 어근 '얼-'과 접사 '-(으)ㅁ'으로 분석된다. 따라서 ㉑에서 어근과 접사로 분석되고, ㉒에서 어근과 어근으로 분석된다는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⑤ '물놀이'는 ㉑에서 어근 '물'과 어근 '놀이'로 분석되고 ㉒에서 어근 '놀-'과 접사 '-이'로 분석된다. 따라서 ㉒에서 어근과 어근으로 분석된다는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14. [출제의도] 높임 표현 이해하기

㉑의 '테리고'를 '모시고'로 수정한 것은 주체인 삼촌이 아니라 객체인 할머니를 직접적으로 높인 것이므로 적절하지 않다.

① ㉒의 '계신가요'를 '있으신가요'로 수정한 것은 주체인 아버지를 간접적으로 높인 것이므로 적절하다. ③ ㉓의 '이'를 '께서', '운다고'를 '오신다고'로 수정한 것은 주체인 부장님을 직접적으로 높인 것이므로 적절하다. ④ ㉔의 '한테'를 '께'로, '주라고'를 '드리라고'로 수정한 것은 객체인 할아버지를 직접적으로 높인 것이므로 적절하다. ⑤ ㉕의 '한테'를 '께'로, ' 물어봐'를 '여쭙봐'로 수정한 것은 객체인 선생님을 직접적으로 높인 것이므로 적절하다.

15. [출제의도] 음운의 변동 이해하기

㉑의 '꽃잎[꼇닙]'은 교체와 첨가가 일어났으며 음운의 개수는 늘었다. ㉒의 '맑지[막찌]'는 탈락과 교체가 일어났으며 음운의 개수는 줄었다. ㉓의 '막힘없다[막기뻐따]'는 축약과 탈락과 교체가 일어났으며 음운의 개수는 줄었다. 따라서 ㉑과 ㉕은 음운의 개수가 줄었습니다.'라는 진술은 적절하다.

[생활과학]

[16 ~ 19] <출전> 이준신 외, 「디스플레이공학 개론」

16. [출제의도] 사실 정보 파악하기

2문단에서 '표면정전방식에서는 패널의 표면에 ~ 센서 역할을 한다.'를 통해 패널에는 전도성이 있는 투명 필름을 입힌다고 했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① 1문단에서 '터치스크린 패널'은 '특정 지점을 직접 접촉'하면 해당 기능을 '직관적으로 조작'할 수 있다고 했으므로 적절하다. ② 3문단에서 '행과 열의 교차점인 접촉 위치'를 파악할 수 있다고 했으므로 적절하다. ④ 5문단에서 '이후 터치좌표쌍의 정보를 ~ 판단하게 된다.'라고 했으므로 적절하다. ⑤ 2문단에서 '표면정전방식은 투영정전방식에 비해 ~ 정확도가 낮고'를 통해 표면정전방식은 투영정전방식에 비해 구조가 단순하고 정확도가 낮다고 했으므로 적절하다.

17. [출제의도] 핵심 개념 이해하기

2문단의 '표면정전방식은 패널의 네 모서리에 있는 각각의 감지회로'에서 표면정전방식 패널에는 감지회로가 네 개이고, 3문단의 '하지만 자기정전방식은 ~ 각각의 센서들을 활용한다.'에서 자기정전방식은 감지회로가 행과 열 각각에 센서가 있음을 알 수 있으므로 ㉑과 달리'라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① 1문단에서 '터치스크린 패널 중 정전용량방식의 패널은 ~ 접촉된 위치를 파악한다.'라고 했으므로 적절하다. ② 2문단에서 표면정전방식은 '전도성 투명 필름'이 '물체의 접촉을 인식하는 센서 역할을 한다'고 하였고, 3문단에서 자기정전방식은 '접촉을 감지할 수 있는 센서'를 구역마다 배치한다고 하였으며, 4문단에서 상호정전방식은 '가로축으로 배열된 센서인 구동 라인'과 '세로축으로 배열된 센서인 감지 라인'을 활용한다고 하였으므로 적절하다. ④ 3문단에서 표면정전방식은 센서들이 '하나의 층'에 배치되어 있다고 하였고, 4문단에서 자기정전방식은 구동 라인과 감지 라인이 '두 개의 층'을 이루고 있다고 하였으므로 적절하다. ⑤ 3문단에서 자기정전방식은 '증가하는 정전용량을 측정하는 방식'이라고 하였고, 4문단에서 상호정전방식은 구동 라인과 감지 라인 사이의 '상호 정전용량이 감소'한다고 하였으므로 적절하다.

18. [출제의도] 핵심 원리 이해하기

4문단에서 '패널에 전도성 물체가 접촉하게 되면 ~ 크기 역시 줄어든다'를 통해 ㉑에서 전기장의 크기가 줄어들었으므로 전도성 물체의 접촉에 의해 구동 라인과 감지 라인 사이에서 형성된 상호 정전용량이 감소했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㉒에서는 전기장의 크기가 P와 같으므로 전도성 물체의 접촉이 없는 상태를 알 수 있고, 이는 구동 라인과 감지 라인 사이의 상호 정전용량의 변화가 없는 것이므로 적절하지 않다.

① 4문단에서 '패널에 전도성 물체가 접촉하게 ~ 접촉된 물체로 흡수된다'를 통해 접촉된 물체가 구동 라인과 감지 라인 사이에 형성된 전기장을 흡수함을 알 수 있고, <자료2>에서 ㉑가 ㉒보다 전기장의 크기가 더 작으므로 ㉑에서 접촉된 물체가 흡수한 전기장의 크기가 ㉒에서 접촉된 물체가 흡수한 전기장의 크기보다 크다는 진술은 적절하다. ② 4문단에서 '이때 접촉이 정확하게 ~ 더 많이 줄어들게 된다.'를 통해 <자료2>에서 전기장의 크기가 더 많이 줄어든 ㉑가 더 정확한 접촉이 일어났음을 알 수 있으므로 적절하다. ③ <자료2>에서 ㉑는 전도성 물체와의 접촉이 없는 상태를 의미하고, 4문단에서 '패널에 전도성 물체와의 ~ 상호 정전용량을 형성한다.'라고 하였으므로 적절하다. ④ 4문단에서 '패널에 전도성 물체가 접촉하게 되면 ~ 전기장의 크기 역시 줄어든다'라고 했으므로 적절하다.

19. [출제의도] 주어진 내용을 바탕으로 추론하기

상호정전방식은 4문단의 '이때 터치좌표쌍은 구동 라인과 ~ 터치좌표쌍이 만들어질 수 있다.'를 통해 터치좌표쌍은 구동 라인과 감지 라인이 개별적으로 인식하여 여러 개의 터치좌표쌍이 만들어짐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상호정전방식은 두 지점을 접촉할 때 구동 라인과 감지 라인의 교차점을 개별적으로 인식하여 멀티 터치를 할 수 있다는 진술은 적절하다.

[현대사]

[20 ~ 22] <출전> 이용악, 「항구」

이정록, 「희망의 거처」

20. [출제의도] 표현상 특징 파악하기

(가)에서는 '희머얼건 얼굴'을 '바늘 끝으로 쏙 찔렀자 솟아나올 한 방울 붉은 피도 없을 것 같은'이라는 직유적 표현으로 나타내고 있고, '부두의 인부꾼들'의 '꺼머티빅'한 외양을 '흙을 씹고 자라난 듯'과 같은 직유적 표현을 사용하여 나타내고 있다. 또한 (나)에서는 '뿌리'의 모습을 '부젓가락 같은'이라는 직유적 표현을 통해 나타내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21. [출제의도] 외적 준거에 따라 작품 감상하기

'마음'이 '흠어졌다'가도 '작대기처럼 꽃꽂히'지던 것은 방황하다가도 마음을 다잡아 의지를 다지는 모습을 나타낸 것이므로 바다로 가로막힌 공간에서 좌절하곤 했던 모습을 드러낸 것이라는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① '검은 기선', '희머얼건 얼굴'은 배가 입항하고 '얼굴들'이 상륙하는 항구의 모습을 시각적 이미지를 통해 감각적으로 형상화하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② '푸른 하늘'은 이상을 상징하는 소재로 볼 수 있으므로 이상을 잃고 고달프게 살아가는 인부꾼들의 생활 현장으로서 항구의 모습을 보여 준다는 진술은 적절하다. ③ '바다의 꿈'을 꾸며 자신을 '민고'자 한 것은 미래에 대한 희망적 태도로 볼 수 있고, '시금트레한 눈초리'는 인부꾼들의 열정을 잃은 모습을 표현한 것으로 화자의 희망적 태도와 대비되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⑤ '여러 해 지난 오늘' '마음'이 '항구로 돌아간다'는 것은 화자가 험겨운 삶 속에서도 의지와 희망을 잃지 않았던 '나진'에서의 자신의 마음을 그리워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적절하다.

22. [출제의도] 시어의 의미에 따라 작품 이해하기

'키우는 것이다'는 '맨발의 근성'과 연결되어 옥수수대가 결뿌리를 내밀어 스스로의 힘으로 땅을 딛고 서는 모습을 나타낸 것이므로 다른 존재와의 교감을 통한 성장을 드러내고 있다는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① '헛발일지라도' 뿌리를 '들이민다'는 것은 마디로부터 뿌리를 뺀어 땅을 디디려는 옥수수대의 모습을 나타낸 것이므로 적절하다. ③ '흠집'에 뿌리를 '박는다'는 것은 버드나무가 자신의 고통스러운 상처인 '흠집'에 뿌리를 내리며 고통을 인내하고 상처를 새로운 시작으로 삼는 모습을 나타낸 것이므로 적절하다. ④ '스스로' 기둥을 '세운다'는 것은 '버드나무'가 스스로 상처를 극복하는 모습을 나타낸 것이므로 적절하다. ⑤ '생이란' '자신의 상처'에서 '버팀목'을 '꺼내는 것'이라고는 옥수수와 버드나무의 모습을 통해 깨닫게 된 생에 대한 인식을 나타낸 것이므로 적절하다.

[사회]

[23 ~ 27] <출전> 박찬호 외, 「국제해양법」

23. [출제의도] 사실적 정보 확인하기

7문단에서 '잠정조치 재판을 통해 잠정조치를 명령'한다고 하였고 5문단에서 잠정조치는 '구속력 있는 임시 조치'라고 하였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② 3문단에서 ‘당사국들은 ~ 선택할 수 있’다고 하였으므로 적절하다. ③ 2문단에서 유엔해양법협약에 따른 ‘분쟁 해결의 원리가 ~ 적용되기 때문’이라고 하였으므로 적절하다. ④ 3문단에서 국제해양법재판소는 ‘유엔해양법협약에 의해 설립된 분쟁 해결 기구’라고 하였으므로 적절하다. ⑤ 2문단에서 유엔해양법협약은 분쟁 당사국에 ‘분쟁 해결에 관하여 신속히 의견을 교환해야’ 하는 의무를 부과하였으므로 적절하다.

24. [출제의도] 구체적 상황에 적용하기

<보기>에 따르면 A국이 요청한 잠정조치가 받아들여져 ‘재판소는 잠정조치를 명령’하였다. 4문단에서 ‘본안 소송을 담당하는 재판소’가 최종 판결을 내리고, 5문단에서 잠정조치는 최종 판결 전에 내려진다고 하였으므로 잠정조치 명령이 내려져서 본안 소송 재판이 종결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① 6문단에서 잠정조치는 ‘재판소에 사건이 회부되면 ~ 요청할 수 있다’고 하였으므로 적절하다. ③ 2문단에서 분쟁 당사국들은 우선 ‘교섭이나 ~ 노력’해야 하며 ‘평화적 분쟁 해결 수단’을 거치는 것은 의무라고 하였으므로 적절하다. ④ 3문단에서 ‘양국이 동일한 선택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 중재재판소에 회부된다’고 하였으므로 적절하다. ⑤ 5문단에서 잠정조치는 ‘긴급한 상황’에서 ‘해양 환경의 중대한 피해를 방지할 목적’으로 내려진다고 하였으므로 적절하다.

25. [출제의도] 세부 내용 이해하기

3문단에서 강제절차에서 선택 가능한 기구 중 ‘중재 재판소는 필요할 때마다 ~ 사전에 결정되어 있다’고 하였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① 2문단에서 유엔해양법협약에 따른 분쟁 해결 절차 중 분쟁 발생은 유엔해양법협약에 대한 ‘해석이나 적용에 관해 국가 간 분쟁이 발생’하였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적절하다. ③ 2문단에서 평화적 수단을 통한 분쟁 해결은 ‘국가 간 합의에 의한’ 것이라고 하였으므로 적절하다. ④ 2문단에서 강제절차는 ‘구속력 있는 결정을 수반하는 절차’라고 하였고 3문단에 ‘강제절차란 ~ 분쟁을 해결하는 절차’라고 하였으므로 적절하다. ⑤ 5문단에서 ‘잠정조치는 ~ 최종 판결이 내려지면 효력이 종료된다.’고 하였으므로 적절하다.

26. [출제의도] 핵심 개념의 세부 내용 파악하기

7문단에서 ‘본안 소송의 관할권을 심리한 결과’, 본안 소송을 담당하는 ‘중재재판소가 관할권을 갖게 될 가능성이 ~ 잠정조치의 관할권을 가질 수 있다’고 하였으므로 적절하다.

② 7문단에서 ‘본안 소송의 관할권을 심리’한 이후에 ‘잠정조치의 관할권을 가질 수 있다’고 하였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③ 7문단에서 ‘본안 소송을 담당하는 ~ 확정되지 않았더라도’ ‘잠정조치의 관할권을 가질 수 있다’고 하였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④ 4문단에서 ‘본안 소송을 담당하는 재판소가 ~ 먼저 본안 소송 관할권’을 확정해야 한다고 하였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⑤ 6문단에서 본안 소송의 개시 시점은 ‘분쟁 당사국이 소송을 제기하여’ 사건이 회부된 때를 의미한다. 그 이후 요청된 잠정조치에 대해 7문단에서 ‘본안 소송의 관할권을 심리’하는 절차를 거친 후 잠정조치의 관할권 인정 여부를 확정할 수 있다고 하였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27. [출제의도] 단어의 의미 파악하기

㉠은 문맥상 ‘필요로 되거나 요구되다.’의 의미로 사용되었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① ㉡는 문맥상 ‘어떤 일이나 사람이 생겨나다.’의 의미로 사용되었으므로 적절하다. ② ㉢는 문맥상 ‘서로 주고받고 하다.’의 의미로 사용되었으므로 적절하다. ④ ㉣는 문맥상 ‘어떤 일을 맡다.’의 의미로 사용

되었으므로 적절하다. ⑤ ㉤는 문맥상 ‘어떤 일이나 현상이 일어나지 못하게 막다.’의 의미로 사용되었으므로 적절하다.

[인문]

[28 ~ 33] <출전> (가) 박영욱, 「보고 듣고 만지는 현대사상」, (나) 이병덕, 「표상의 언어에서 추론의 언어로」

28. [출제의도] 서술상의 공통점 파악하기

(가)는 언어에 대한 소쉬르의 이론을, (나)는 언어에 대한 비트겐슈타인의 이론을 관련 사례를 들어 소개하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29. [출제의도] 세부 내용 파악하기

(가)의 3문단의 ‘소쉬르는 어떤 사람이 ~ 지배되거나 제약받는다’고 주장한다.’를 보면 파롤의 표현 방식은 랑그에 의해서 제약을 받는다는 것을 알 수 있으므로 적절하다.

① (가)의 4문단의 ‘결국 소쉬르의 ~ 함축하고 있는 것이다.’를 보면 소쉬르는 언어를 현실 세계를 수동적으로 재현하는 수단으로 보고 있지 않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② (가)의 3문단의 ‘랑그란 언어가 갖는 추상적인 체계이고’를 보면 파롤이 언어의 추상적인 체계를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③ (가)의 3문단의 ‘파롤은 랑그에 ~ 구체적인 발화이다’를 보면 랑그는 개인이 실현하는 구체적인 발화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⑤ (가)의 4문단의 ‘하지만 소쉬르는 ~ 전제하고 있다.’를 보면 랑그는 파롤을 바탕으로 발화자가 주체임을 드러내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30. [출제의도] 사례에 적용하여 이해하기

<보기>에는 영어권의 외국인들이 낯지와 문어를 잘 구분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언급되어 있다. (가)의 3문단의 ‘이는 결국 ~ 의미하는 것이다.’와 4문단의 ‘오히려 언어가 ~ 있는 것이다’를 보면 소쉬르의 입장에서 이는 영어권의 외국인들이 그들의 언어에 맞게 현실 세계를 구성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첫 번째 학생의 댓글 중 ㉠에는 ‘비슷하게’, ㉡에는 ‘구성한다는’이 들어가는 것이 적절하다. 한편 <보기>에는 영어에 주꾸미와 낯지를 구분하는 단어가 없다는 것이 언급되어 있다. (나)의 4문단의 ‘이는 결국 ~ 다양하기 때문이다.’를 보면 비트겐슈타인의 입장에서 이는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공유하는 삶의 양식에 맞게 영어가 만들어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두 번째 학생의 댓글 중 ㉢에는 ‘삶의 양식’이 들어가는 것이 적절하다.

31. [출제의도] 공통점과 차이점 이해하기

(가)의 2문단의 ‘소쉬르에 따르면 ~ 사회적 약속일 뿐이다.’와 (나)의 2문단의 ‘게임의 규칙은 ~ 만드는 형식에 불과하다’를 보면 소쉬르와 비트겐슈타인은 모두 언어가 사람들의 약속에 의해 형성된다는 것을 비판하고 있지 않으므로 질문에 ‘예’라고 한 학생의 응답은 적절하지 않다.

① (가)의 1문단의 ‘소쉬르 이전의 ~ 인식한다고 주장한다.’를 보면 소쉬르는 언어가 현실 세계의 대상을 지칭하는 것으로 보고 있지 않으므로 질문에 ‘아니요’라고 한 학생의 응답은 적절하다. ② (나)의 3문단의 ‘따라서 비트겐슈타인은 언어에 ~ 없앨 수도 있다고 말한다.’를 보면 비트겐슈타인은 언어에 존재하는 많은 불명확성에 대해 긍정하고 있으므로 질문에 ‘예’라고 한 학생의 응답은 적절하다. ③ (가)의 1문단의 ‘소쉬르의 언어학은 ~ 새롭게 인식한다고 주장한다.’와 (나)의 4문단의 ‘전통적으로 어떤 개념을 ~ 버려야 한다고 강조한다.’를 보면 소쉬르와 비트겐

슈타인은 모두 언어에 대한 전통적인 입장을 고수하고 있지 않으므로 질문에 ‘아니요’라고 한 학생의 응답은 적절하다. ⑤ (나)의 1문단의 ‘비트겐슈타인에게 언어는 ~ 모습으로 존재한다.’를 보면 비트겐슈타인은 언어가 사용하는 사람들의 맥락에 따라 다르게 사용될 수도 있다는 것을 부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질문에 ‘아니요’라고 한 학생의 응답은 적절하다.

32. [출제의도] 자료를 바탕으로 이해하기

(나)의 4문단의 ‘따라서 비트겐슈타인에게 있어 ~ 만들어지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를 보면 비트겐슈타인은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의 소통에 의해서 언어가 만들어지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따라서 세계가 먼저 있고 그 세계를 재현하기 위해서 언어가 존재한다는 ㉠의 입장과 유사하게, 비트겐슈타인은 언어가 먼저 있고 절대 불변의 법칙에 따라 세계가 존재한다고 주장하고 있지 않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① (가)의 2문단의 ‘소쉬르에 따르면 ~ 대응하는 것이다.’를 보면 개념이 말소리와 직접적으로 연결된다는 ㉡의 입장과 유사하게, 소쉬르는 언어가 기표와 기의의 대응을 통해 이루어진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② (나)의 1문단의 ‘비트겐슈타인에게 언어는 ~ 모습으로 존재한다.’를 보면 언어는 일정한 의미를 형성하게 된다는 ㉢의 입장과 달리, 비트겐슈타인은 언어가 사람들의 소통에 의해서 만들어진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③ (가)의 2문단의 ‘소쉬르에 따르면 언어는 ~ 자의적인 체계이다.’와 4문단의 ‘결국 소쉬르의 언어학은 ~ 함축하고 있는 것이다.’를 보면 언어란 현실 세계를 재현하기 위한 수단이라는 ㉣의 입장과 달리, 소쉬르는 언어가 자의적인 성격을 지닐 뿐이며 현실 세계를 재현하는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⑤ (가)의 2문단의 ‘소쉬르에 따르면 언어는 ~ 자의적인 체계이다.’를 보면 언어에서 사물의 이름은 임의적으로 붙여진 것이 아니라는 ㉤의 입장과 달리, 소쉬르는 기표와 기의의 관계가 필연적이지 않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33. [출제의도] 어휘의 의미 파악하기

(나)의 ㉠은 ‘여럿 중에서 가려내거나 뽑다.’의 의미로 사용되었으므로 적절하다.

① (가)의 ㉡은 ‘어떤 대상을 무엇이라고 이름 붙이거나 가리켜 말하다.’의 의미로 사용되었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② (가)의 ㉢은 ‘행위의 준거점, 목표, 근거 따위를 설정하다.’의 의미로 사용되었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③ (나)의 ㉣은 ‘어떤 경우, 사실이나 기준 따위에 의거하다.’의 의미로 사용되었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⑤ (나)의 ㉤은 ‘무엇이 서로 밀접한 관련을 맺으며 어우러지다.’의 의미로 사용되었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고전소설]

[34 ~ 37] <출전> 작자 미상, 「유씨전」

34. [출제의도] 서술상의 특징 파악하기

‘유씨’와 ‘염왕’과의 대화를 통해 남편과 함께 저승에 남으려고 하는 ‘유씨’와 원명에 따라 유씨를 이승으로 돌려보내고자 하는 ‘염왕’ 사이의 갈등 상황이 구체화되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35. [출제의도] 작품의 세부 내용 이해하기

‘그간 중에도 ~ 실로 미안하여이다.’에서 유씨는 자신을 위문하러 나온 양옥에게 미안한 감정을 표현하고 있을 뿐, 춘매를 죽음에 이르게 했다는 이유로 양옥을 원망했다는 것은 드러나지 않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① ‘춘매는 인간에게 ~ 급히 잡아들이라.’에서 확인할 수 있으므로 적절하다. ② ‘유씨 혼백이 ~ 바빠 가옵

소서.'에서 확인할 수 있으므로 적절하다. ③ '양육이 놀라~나와 기다렸다.'에서 확인할 수 있으므로 적절하다. ⑤ '내 돌아오는 길에~테리고 들어가노라.'에서 확인할 수 있으므로 적절하다.

36. [출제의도] 인물의 말하기 방식 파악하기

[A]에서는 남편을 잃어 '기쁠 곳 없는' 자신과 자식을 잃은 '백발 노친'의 불행한 처지를 들어, [B]에서는 '젊은 인생 배필 없'고 '의탁할 곳 없는' 자신과 '부모 자식 간에 사랑을 이리도 일찍 저버'린 남편 춘매의 불행한 처지를 들어 자신의 감정을 토로하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37. [출제의도] 외적 준거에 따라 작품 감상하기

염왕이 유씨에게 '춘매는 제 원명으로 잡아 왔다'고 말한 것은 춘매의 능력을 알아보기 위한 염왕의 시험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① 염왕이 유씨의 '백설 같은 정절과 절의에 탄복하여' 이에 대한 보상으로 유씨와 춘매를 저승에서 이승으로 '함께 도로 내려보내'려는 것은 비현실적인 저승에서 현실적인 이승으로 이어지는 염왕의 보상이라고 할 수 있으므로 적절하다. ③ 유씨가 모친에 대하여 묻는 염왕의 질문에 대하여 '공방 독침 혼자 누워 무슨 봉양하며', '부부지정은 끊지 못하겠'다고 말하는 것은 다른 유교적 가치인 효에 앞서 사랑을 택하는 적극적 모습이라고 할 수 있으므로 적절하다. ④ 유씨가 '불측한 일을 당하여 목숨을 겨우 부지하'며 '천 리 밖에' 둔 '낭군'을 찾아, 춘매의 '관 앞'에 당당한 것은 남편에 대한 사랑으로 현실 세계의 고난을 견뎌 내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으므로 적절하다. ⑤ '다른 배필을 정하여 줄 것이니 네 여연을 다 살고 돌아오라'는 염왕을 유씨가 '꾸짖'는 것에서 초월적 존재 앞에서도 당당하게 자신의 의지를 굽히지 않는 주체적인 여인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적절하다.

[현대소설]

[38 ~ 41] <출전> 김원우, 「아득한 나날」

38. [출제의도] 서술상의 특징 파악하기

[A]의 '나는 그의 실직을~얼버무릴 심산이었다.'에서 서술자인 '나'의 예상되는 행위가 나열되고 있고 '그 실직 소식에~초라하게 만들 것이었다.'와 '도와 주지도 않을~동정은 무조건 받기 싫었다.'에서 '나'의 심리가 제시되고 있다. [B]에서는 '나'의 관점에서 서술 대상인 '그'에 대해 '그는~흥미를 잃어버린 것이었다.', '그리고 그가~분별력이 있어지리라고 믿었다.'와 같이 주관적인 판단이 제시되어 있으므로 적절하다.

39. [출제의도] 인물의 심리 파악하기

㉠에는 '노인네보다 먼저 죽으면 안 되는데 말이야.'라는 갑작스럽고 엉뚱한 남편의 진지한 말에 대해 '안 죽어요. 죽긴 누가 죽어요?'라고 말하는 것에서 나의 확신이 드러나 있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① ㉠에는 '그는 자신의 직업에 대한 어떤 모멸감을 느꼈다.'와 '나아가서 모멸은~했던 터이라'에서 그의 모멸감이 내재되어 있으므로 적절하다. ② ㉡에는 '기계적인 일련의 직무 수행'에 대해 '이 시답잖은 것들아~고함을 지르고 싶었다.'라고 여긴 것에서 그의 분노를 엿볼 수 있으므로 적절하다. ③ ㉢에는 '모든 먹물들은~모르는 까막눈이다.'와 '총 앞에서만 와들 와들 떠는~까막눈이다.'에서 그의 떨시가 드러나 있으므로 적절하다. ④ ㉣에는 '지나온 날'을 '관조기'라고 여기며 '조금 쓸쓸해'하는 것에서 나의 쓸쓸함을 엿볼 수 있으므로 적절하다.

40. [출제의도] 소재의 의미 파악하기

'당신은 지금 너무 편하고~잔걱정이 많은 거예요.'라고 아내가 말하고 있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② '당신은 악이 없어졌어요.'라는 아내의 말에 대해 '언제는 내가 악이 있었나?~악만으로 어떻게 살아.'와 '내가 편하다고? 웃기고 있네!'라고 남편이 말하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③ '일 년쯤 어디~고생이나 실컷 했으면 좀 살 것 같애.'라는 남편의 말에 대해 '다들 너무 편하니 나사가 풀린 거예요.'라고 아내가 말하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④ '언제는 내가~무쇠처럼 살았어.'라고 말하는 남편에게 '퀘변 늘어놓지 마시고 나사를 좀 조여 보세요.'라고 아내가 말하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⑤ '해적 기자~사람도 있다면서요?'라는 아내의 말에 대해 '그 친구들은~이런 무력감 같은 것도 모를 거야.'라고 남편이 말하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41. [출제의도] 외적 준거에 따라 작품 감상하기

나의 말을 '교과서 같은 소리'라고 여기며 남들이 '무슨 욕을 하'더라도 '열심히 살아'야겠다는 그의 모습에서 원칙과 상식이 통하는 사회를 살아가려는 모습을 알 수 있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① 동료들이 '다들 사태를 훤히 알고 있으면서도 눈만 껌벅거리'고, 까닭이나 필요 없이 전화를 하며 '유행가 가사만을 읊조리는' 모습에서 현실 세계 문제를 외면하며 살아가는 인물들의 부도덕함을 알 수 있으므로 적절하다. ② '그를 따'랐던 후배기자가 '안 찍히려'면 '적당한 핑계'를 하나 만들어 놓겠다고 말하며 부서 회식을 피하려는 모습에서 삶에 매몰되어 속물적 사고로 인해 믿음과 의리를 저버리는 중산층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적절하다. ③ 기자인 그가 자신이 속해 있는 방송국을 '기계'와 '로봇'처럼 살아가는 '괴물의 집단'이라고 여기며 '이놈의 동네'가 '기자로서의 사명감'이 없어진지 오래라고 여기는 모습에서 현실적 삶을 반성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적절하다. ④ '정신없이 바쁘게 살'아오며 '진기가 다 빠'져버린 그의 상태를 '각성의 계기'이며 '축복'이라고 여기는 나의 모습에서 평범한 일상의 회복에 대한 기대를 알 수 있으므로 적절하다.

[고전시가 · 고전수필]

[42 ~ 45] <출전> 조우인, 「매호별곡」
어유봉, 「양저설」

42. [출제의도] 두 작품을 비교하여 감상하기

㉠에는 '두어라'라고 하며 현재의 삶의 상태로 '종로한 들 어이하리'라고 하고 있으므로 현재의 삶이 지속되기를 바라는 심정이 나타난다는 것은 적절하다. 그러나 ㉡에는 '한가롭고 여유 있게 놀다가 늙어서' '숲과 풀에서 죽을 것'이라고 하고 있으므로 현재의 삶에서 벗어나고 싶은 심정이 나타난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① ㉠에는 '공명부귀'를 '구하기에 재주'가 없다고 하고 있으므로 자신의 능력에 대한 인식이 나타나고, ㉡에는 '그대'가 '더러움과 고상함을 섞음에서 취하고 자'한다고 하고 있으므로 타인의 행동에 대한 인식이 나타나는 것이 적절하다. ② ㉡에는 '빈천기한'을 '일생'동안 겪었다고 하고 있으므로 가난한 삶의 모습이 나타나고, ㉢에는 '얕은 재주와 기능'으로 '벼슬아치의 프락'에서 '구하고자 시도하기를' 하고 있었으므로 벼슬을 구하고자 했던 삶의 모습이 나타나는 것이 적절하다. ③ ㉢에는 '백구'와 '벗을 삼고'자 하고 있으므로 자연과 조화를 이루려는 태도가 나타나고, ㉣에는 '내'가 '기국원'을 가꾸어 '이름난 풀과 아름다운 나무들을' '갓추'고 있으므로 자연물을 가꾸며 살아가

는 태도가 나타나는 것이 적절하다. ④ ㉣에는 '술동이를 기울여'서 취하도록 마시고 있으므로 자연에서 즐기는 흥취가 나타나고, ㉤에는 자연물을 '자르지 말'게 하고 '흙을 북돋워 주어' '겉으로 빌려 퍼지게' 하고 있으므로 자연물을 아끼는 마음이 나타나는 것이 적절하다.

43. [출제의도] 외적 준거를 따라 작품 감상하기

'망망속물'을 '안중에 티끌'로 비유하고 있으나, 망망속물은 속세가 자연에서 멀지 않은 곳에 있다는 인식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속세가 아득하다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므로 적절하지 않다.

① '영욕을 어이 알며'와 '출척을 어이 알까'는 세상의 이익이나 공명을 잘 알지 못하는 자신에 대한 인식을 반복과 변주를 통해 드러낸 것이므로 적절하다. ② '기대어 앉아 보며'와 '베고도 누워 보며'는 자연을 벗하며 한가로이 살아가는 모습을 행동 묘사를 통해 드러낸 것이므로 적절하다. ④ 자연 속에서 풍류를 즐기는 모습을 추상적인 '만강풍류'를 배에 '실어 오'는 것과 같이 구체화되는 것을 통해 드러낸 것이므로 적절하다. ⑤ 마음껏 자연을 누리는 모습을 '걸린 것이 무엇이랴'라는 설의적 표현을 통해 드러낸 것이므로 적절하다.

44. [출제의도] 인물의 말하기 방식 파악하기

㉢가 ㉢에게 '주부자(朱夫子)'의 말을 '한 그릇 속에~구하기는 어렵다'고 인용하여 '더러움'과 '고상함'을 섞음에서 '고상함'을 취하기 어렵다는 자신의 의견을 강조하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45. [출제의도] 소재의 의미 파악하기

'산수'는 자연에 대해 즐기는 버릇이 있는 화자가 자연 속에 들어와 즐기며 지내는 공간이므로 지향하는 삶의 모습이 실현된 공간이라는 진술은 적절하다. 또한 '정원'에서 '가족나무'를 통해 '쓰여짐 없는 것의 귀한 바'를 깨닫고 '한가롭고 여유 있게 놀다가 늙어서 숲과 풀 사이에 죽을 것'이라는 삶의 모습을 지향하게 되었으므로, 지향해야 할 삶의 모습을 깨닫게 된 공간이라는 진술은 적절하다.